

추석연휴 코로나19 유행·생활방역 분기점

“방역 피로도 고민...어렵지만 협조해달라” “개천절 집회, 방역 위해 일시 제한 불가피”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9월말~10월초 연휴기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을 위해 이번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기간은 우리가 다시 사회

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정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주 월요일인 28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추석 특별 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삼가고 전화를 안부 묻으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에 있는 가정은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직접 만나기 쉽지 않고 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재유행을 막아야만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국민들과 방역 종사자, 의료진들이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이 고민”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해 발표할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10월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한다”며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추석연휴 관광·숙박시설 방역 특별점검

시·군 직원 92명, 방역 관리요원 440명 투입 이용자·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고향 방문 자체 권고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방역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10월4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태세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고향 인근 관광지와 숙박시설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전남도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아쿠아플라넷 여수 등 187개소를 비롯해 숙박시설인 진도 솔비치, 여수 디오션 등 29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직원 92명과 함께 올해 문체부 지원 국비 54억원으로 채용한 440명의 방역 관리요원 등 총 532명을 투입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사전점검에

이어 30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에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밀접 접촉 방지를 위한 이용자 동선 분리, 정원 초과 및 과다한 방문객 수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규정 준수 등이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추석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지만 부득이하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신안 생물권보전지역서 ‘노란별수선’ 분포 확인



신안군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 섬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조사에서 노란별수선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란별수선은 일본의 식물학자 오이 지사브로에 의해 1935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지역에서 채집됐다.

이는 일본 도쿄대학에 표본 1점이 보존돼 있음을 1985년 국내 식물학자 이우철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실제가 파악되지 않다가 2008년 서귀포시 일대에서 재발견, 2010년 환경부에서 신안지역 무인도에서 자연환경조사 때 노란별수선 분포가 확인됐다.

노란별수선은 네팔, 타이완,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에 분포하는 식물이다.

다년생 초본생으로 별 모양의 노란 꽃을 5~9월에 피우며 숲 가장자리와 축축한 초원에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해역 적조 예비주의보 해제

수온 2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소멸할 듯...예찰 강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적조 예비주의보가 해제된 여수해역 인근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여름철 고수온 적조 발생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적조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현장조사 하는 등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속한 상황공유를 위해 예찰 결과는 어업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시 전파하며, 양식장 밀집 방지와 급이량 조절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 관리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분석결과 올해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최근 잇따른 태풍이 전남해역을 통과하면서 수온과 염분이 낮아져 적조생물이 전남 해역에 쉽게 번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달 초 여수해역 수온이 23.9~24.5도로 코클로디니움의 대량 번식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지난 17일 해제됐다.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수온이 2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서서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조가 소멸할 때까지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어장을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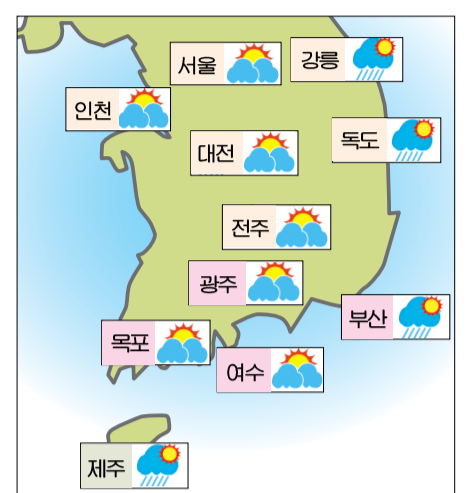


낮 기온은 22~25도, 아침 기온은 10~15도로 선선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니 건강에 유의.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주간날씨

날짜	24일(목)	25일(금)	26일(토)	27일(일)	28일(월)	29일(화)
날씨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15~25	20 20
나주		15~24	20 20
담양		15~23	20 20
순천		14~24	20 20
영광		15~23	20 20
목포		17~23	20 20
무안		16~23	20 20
진도		16~21	20 20
여수		19~24	20 20
광양		18~24	20 20
고흥		17~24	20 20
완도		18~24	20 20
해남		15~24	20 20
장흥		17~24	20 20



서·남해 날씨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알바다	북-북동	18~29	0.5~1
	면바다	북-북동	25~40	1~2
남해서부	알바다	북-북동	29~43	1~2
	면바다	북동-동	36~50	2~3

광주서 1만원권 위조지폐 발견

19일 북구 만화방서 5만원권 발견...국과수 지문 감식

추석을 앞두고 광주에서 잇따라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상인이 1만원권 위폐 1장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상인은 지난 21일 건어물을 팔아 받은 현금 다발을 은행에 입금하던

중 위조 지폐를 발견했다.

경찰은 상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폐를 건넌 이가 누군지 쫓고 있다. 또 위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지문 감식을 의뢰, 정확한 유통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9일 북구의 만화방에서는 손님이 건넌 요금 중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됐다. /한동주 기자

한가위 보름달 내달 1일 오후 6시20분에 뜬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10월1일 서울 기준 오후 6시20분에 뜬다.

23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0월 1일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20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2일 0시20분이다.

하지만 이 때 달은 아직 완전히 둥근 모습이 아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망월)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날인 2일 6시5분이다.

따라서 2일 달이 지기 직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서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다.

지역별 보름달이 뜨는 시간은 울산 오후 6시10분, 부산 오후 6시11분, 대구 오후 6시13분, 광주 오후 6시20분, 대전 오후 6시18분이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